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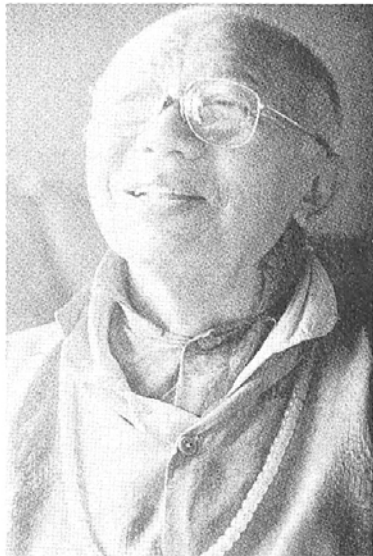
성도절 특집 - '깨달음' 주제로 한 지상법석

지혜 자유로워집니다

일상생활에 철전하다 보면 우리는 문득 마음의 본질을 분명히 꿰뚫어 보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없게 바로 우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열정(情)' '무지(眞)' '호전성(仇)'이라는 삼독(三毒)이 있습니다. 삼독은 우리가 어렵게 접하는 '그 순간'에 홀연히 나타나 마음을 흐려놓고 사라집니다. '그 순간'이란 다름아닌 일상에 혼미해진 마음이 정화되는 '찰나', 즉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의 근원인 '리교파'(지혜, rigpa)가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현재·미래를 끊임없이 윤회해야 하는 데는 '업'(karma)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순간' '찰나' '정화'라 말했던 것은 모두 윤회하고 부정적인 '업'을 없애기 위해 하고 온전한 법신(法身 dhamakaya)을 바로 보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법신 보다 더 명확한 본질은 아



툴쿠 우르젠 린포체 (티베트)



아잔 부다다사 스님 (태국)

“끊임없는 수행정진 깨달음의 삶이죠”

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연이 닿아서 '그 순간'을 경험한다고 해도, 사실 법신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것은 실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신이라는 속성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신은 어떻게 해야 대할 수 있을까요? 흔히 '명상'을 통해 얻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신은 명상만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법신은 현재 우리의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법신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지는 않습니다.

불꽃에 자신의 머리칼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불꽃뿐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법신은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우리가 사유(私)한 '생각'이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삼독은 곧 사유에서 비롯됩니다. 사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착'이라고 해야겠

조. 집착(사유)과 법신의 관계는 마치 '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못'을 완전히 벗어 버리면, 알몸만 남는

이치와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해 '못'은 인간이 사유한 철학 혹은 생각이요 알몸은 바로 법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법신은 어떤 방법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명상만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명상'과 함께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당장 명상을 시작해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은 깨달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못', 즉 자신의 생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리교파(지혜)는 더욱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명상과 더불어 행동, 즉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끊임없는 수행의 자세를 지니고 사는 것이 깨달음의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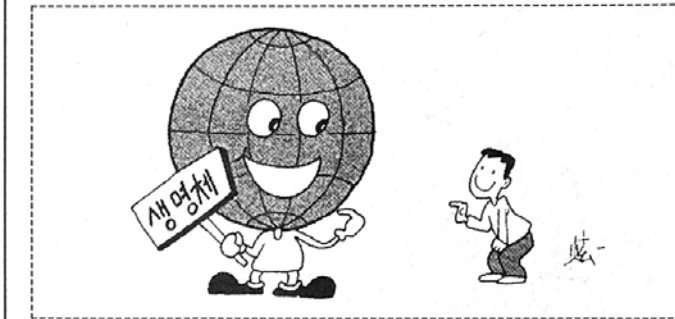
“살아가는 게 덧없다”라고 흔히 말한다. 대체 덧없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공(空)을 앞세워 말문을 틔니다. 그런데 과연 필부(匹夫)의 ‘공’이 과연 부처님의 ‘공’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필부가 사용하는 세속적인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공’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공’의 의미를 깨달는 것이 깨달음의 삶을 영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사라나하는 법을 말한다”라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하나의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은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란 말도 사라져야겠지요. 그러나 여기까지의 ‘공’은 아직 미숙한 ‘공’입니다. ‘집착’과 ‘내 것’이라는 말에는 다분히 ‘마음’이 존재합니다. 즉 ‘공’이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일체의 마음 역시 ‘공’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공’하

고 있는 ‘공’을 깨닫지 못할뿐더러 만물과 관련해 모든 것이 ‘공’하다는 본질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취는 더럽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더럽다는 것은 ‘공’에 싸인 집착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집착하느라 쥐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공’하므로 쥐도 ‘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해 ‘공’은 반드시 모든 사물의 특징이며,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이라고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문젠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먼저는 비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참세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자아가 아니지만 마음은 자아이다.” 어떻습니까.

비록 이런 수수께끼를 통해 완벽한 ‘공’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계속해 ‘공’을 생각한다면 분명 삶의 '본질'을 깨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천체로 여행을 하면서, 그 천체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탐사한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와 형태를 보이는 생명체가 다른 천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지구의 생명체를 접하면서 얻은 경험만으로 그러한 탐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에 근거하여 (지상의 생명체와 다른 것까지 포함하여)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화성에 생물이 존재하는지를 탐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참가하였던 과학자의 한 사람인 러브록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생명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생명체란 비평형의 상태 즉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라고 결론내렸다. 다시 말하면 자유



우리가 미지의 천체로 여행을 하면서, 그 천체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탐사한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와 형태를 보이는 생명체가 다른 천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지구의 생명체를 접하면서 얻은 경험만으로 그러한 탐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에 근거하여 (지상의 생명체와 다른 것까지 포함하여)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화성에 생물이 존재하는지를 탐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참가하였던 과학자의 한 사람인 러브록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생명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생명체란 비평형의 상태 즉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라고 결론내렸다. 다시 말하면 자유

나의 거대한 생명체를 이룬다고 가정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아라고 불렀다. 여기서 가이아라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하나의 실체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으나, 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체의 사물은 오직 상호 연관이라는 연기의 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물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즉 어떤 존재가 지속적 존재 양상을 나타내어 마치 실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며 그렇게 나타나게끔 인연이 성립한 것일 뿐이니 그 존재에 대해 자성을 상징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이아를 논의하는 것은 가이아의 실체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가이아 이론이 제시하는 사물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

지구 전체가 자율조정 기능 갖춘 생명체 연기와 공의 세계 태양계까지 확대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우리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 몸이 환경과 비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비평형 상태 혹은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는 음식물에서 얻는 자유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런데 생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보니 다른 다른 지구가 거대한 생명이라는 자각에 이르게 되었다. 지구는 그 전체가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 즉 탈평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령 지구의 대기는 금성이나 화성의 대기처럼 화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탈평형의 상태에 있다. 한 예로 현재의 지구는 40억년 전의 원시 대기에도 없었고 다른 천체에는 없는 산소를, 생명 현상이 유지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조성비인 21%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탈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러한 자율조정 기능은 생명체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구 대기의 조성비나 지구의 온도 등 여러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러브록은 지구의 생물권과 대기권, 해양, 토양까지를 포함하여 이 모두가 하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조계종 승려
	4년	• 동신 40명	최종 학교 졸업증서 1통	포교사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 주간 60명 • 동신 40명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중국어과	2년	• 주간 40명 • 야간 20명	주민등록등본 1통	
불교미술과	2년	• 주간 20명	반영환관 사진 5매	
신원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 주간 40명 • 동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4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원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불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징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사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6년 1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문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평동서 : 816-9500
 대구 제일서림 : 424-0801 대전 문경서적 : 252-855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 화제의 인물 소문에서 소문으로!!

불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능한 불치병, 난치병 치료와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대명당에 편히 모시는 비법을 오-링테스트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화제의 인물 법현 법사!
 (일본에서는 "오트라 테스트"라 해서 새로운 질병 진단법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생명과학인: 오-링테스트는?

상담자의 오른손을 엄지와 인지로 맞대어 O자 모양을 만들어 검사자는 정신적 능력으로 표준을 정하여 검사하면 질병과 역운의 원인을 밝혀주며 상담자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만성질환상담

정신병, 우울증, 뇌졸중, 관절염, 신경통,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위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사업실패, 자녀불행, 가정불행

상담문의
 (051) 465-5100
 467-5200

상담장소: 불심포교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 뒤)

법현 법사 특별상담!!

조상 묘지 상담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하게 묘한 명당에는 고인의 영혼을 편안히 모시면서 극락토에 이르게 하여 준다.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유골을 명당도에 모시거나 묘지 옆에 묻어 주면 명당이 되어 자손이 발복을 받아 만성질환도 치료되고 행복이 이루어진다.

- 묘지에 함부로 손을 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
- 명당도에는 묘지 옆에 묻어만 주면 영혼이 편안하게 된다.
- 묘지가 없는 영혼도 명당도에 모셔 주면 편안한 영혼이 된다.